

< 긍휼히 여기심을 받자 >

히브리서 4:14-16 / 새찬송가 35 (통일 50) 큰 영화로신 주

1.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롬9:15,16).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창3:21).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희생제물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상징입니다.

이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것은 다 징벌밖에 없으며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히4:15,16).

2.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죄인과 그렇지 못한 악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는 자는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죄인은 용서받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명언이라고 알려진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소크라테스 자신은 진리를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나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악인이 있습니다(눅23:39-41).

그러므로 참된 신앙, 참된 구원과 축복은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데서 출발합니다. 시편51편에서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 했다’고 한 것은 사람에게 범죄한 것도 결국 하나님께 범죄 한 것이며 이는 사람에게 대한 범죄보다 더 중한 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시51:3-5).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진실로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자비를 바라며 주님께 드리는 탄식입니다.

3.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자신이 불쌍한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만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두 맹인을 고쳐주셨고 바디매오의 눈도 뜨게 해주셨습니다(눅 17:11-13).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신앙’이야 말로 참된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주님이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경우를 보면 이는 명백합니다(막 9:21-23). 이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는 것’을 받은 다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신세를 진 자들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심지어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미워하기 보다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마18:32-35).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 대해 악하기 보다는 무지한 자들 즉 무지하니 불쌍한 자들로 보셨습니다(약2:13).

<적용&실천>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시다.